

신화 시어터와 신화·전설의 회랑

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의 무대였던 시마네현 이즈모 지방은 ‘신들의 나라’, ‘신화의 고향’이라고 불립니다. 박물관에 마련된 본 코너에서는 고대 이즈모에 관한 신화와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시어터에서는 4편의 단편 영화(1편당 약 20분)를 교차 상영하며, 시어터 입구에서 무료 배포하는 휴대형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영화의 내용을 영어 해설로 들을 수 있습니다.

상영작은 ‘오쿠니누시 신화’, ‘스사노오 신화’, ‘후도키 신화’, ‘중세의 오로치 신화’ 등 4가지 이야기입니다. 앞 3편은 8세기의 고사기(古事記), 일본서기(日本書紀), 이즈모노쿠니 후도키 등 3개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‘중세의 오로치 신화’는 1523년에 쓰여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신화와 전설의 회랑에서는 이 신화들이 전해진 경위와 주석서, 등장인물, 장면을 묘사한 작품 등을 전시합니다. 회랑의 벽과 천장에는 섬뜩한 가면과 거대한 용을 닮은 큰 뱀이 장식되어 있습니다. 일본 전통 예능인 가구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상과 소품을 사용하여 신화를 재현합니다.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모양의 장식은 스사노오가 처음으로 이즈모를 찾았을 때 퇴치한 야마타노오로치입니다. 이 이야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일본의 창세기에 관한 내용은 영화 ‘스사노오 신화’에서 소개합니다.